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지정보 시스템 '큰 책'

독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서지정보 제공



9월 17일 광주 무등파트호텔에서 '국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공개 워크숍

금년 7월에 발족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두영) 특별연구팀은 9월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국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공개 워크숍을 가졌다. 한국문화진흥예술원의 후원에 힘입어 만든 <독서서지정보 시스템>은 개인이 상황에 따라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도서관계는 물론 출판계에서도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서지정보 시스템

기조연설을 맡은 한윤옥 교수(경기대 문헌정보학과)는 <독서서지정보 제공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과학적 독서지도법 및 독서 관련 서지정보 제공, 각급 도서관이나 독서활동 기관의 독서지도와 상담 활동의 정보센터 역할 수행, 그리고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독서서지정보 시스템은 독자들의 개성과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독서지도 방법을 제공하고, 기능과 효용에

다른 목적성이 뚜렷한 독서서지의 개발과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춰 온라인 독서지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자가 직접 참여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서를 선정해 도서목록을 만든다. 즉, 어떤 독자가 책을 읽고자 할 때 처하게 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추천도서 목록의 유연성 또한 보장된다.

인터넷 독서서지정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성기주 교수(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는 데모판 인터넷 프로그램 '큰 책(BIG BOOK, 도서관협회 하위 디렉토리인 www.korla.or.kr/bigbook/ 또는 www.bigbook.or.kr)로 제공'을 시연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독서서지정보의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홈페이지 '큰 책'은 독자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읽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황별 도서목록,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상담, 독서체험 나누기·추천목록 보기 등의 독서쉼터 등으로 이뤄졌다. 자료게시판인 독서문화자료실, 지역·관중별 도서관 찾기, 기사검색·지정사이트 검색을 할 수 있는 정보검색 등도 있다. 또한 이용자와 원활하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BBS(온라인 게시판)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책읽기 유도

서지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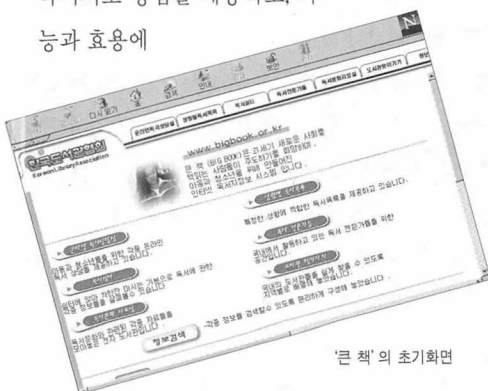
(승문고)씨가 발표한 <상황별 도서목록으로서 독서서지의 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황별 추천도서 목록은 종래의 권장 도서목록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적서를 추천,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책'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기본 서지정보는 1차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상황별 도서목록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작성한다. 무엇보다 시스템이 갖는 특색은 독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친구와 헤어졌을 때, 괴로울 때, 여름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여행할 때, 진로가 고민될 때, 슬플 때, 배고플 때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싶을 때, <노인과 바다>는 어렵고 힘든 역경을 인내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읽을 수 있다는 것.

상황에 따른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독서클리닉에 대한 장치도 마련했다. 온라인 독서상담실은 다양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독서전문가들이 참여해 독서지도, 장애교정, 치료와 상담 등 독서클리닉 활동을 펼친다.

한편, 새천년 국민독서 문화의 새로운 인프라로 공개될 <독서서지정보 시스템>은 관련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완성될 예정이다.

— 광주·오완진기자



'큰 책'의 초기화면